

기독교인의 영적 탄력성에 대한 예측 요인 연구 : 영적 안녕감, 하나님 이미지, 자존감을 중심으로

심 정 연*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인의 영적 탄력성(Spiritual resilience)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영적 탄력성과 영적 안녕감, 하나님 이미지, 자존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둘째, 영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의 적합성과 영향력을 검증하고, 셋째, 하나님 이미지와 자존감이 영적 안녕감과 영적 탄력성을 매개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적 탄력성, 영적 안녕감, 하나님 이미지, 자존감은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영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조방정식으로 확인한 결과, 영적 안녕감은 하나님 이미지와 자존감을 예측하고, 하나님 이미지는 영적 탄력성을 예측하였다. 셋째, 영적 안녕감이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영적 탄력성을 예측하였다. 반면 영적 안녕감이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영적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기독교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적 안녕감과 삶의 의미 경험이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기독교인의 영적 역량 중 하나인 영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다. 본 연구의 임상적, 연구적 의의와 함께 성경적 상담의 적용과 연구의 한계, 추후 연구들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영적 탄력성, 영적 역량, 하나님 이미지, 영적 안녕감, 성경적 상담

* 승실사이버대학교 크리스천 리더십학과 강사

I. 여는 글

하나님과의 단절감, 무의미, 신앙 자원의 결핍 등을 포함하는 영적 고통은 상담의 주 호소 문제와 여러 정신병리의 핵심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Berg, 2011; Caldeira et al., 2017; Delgado-Guay et al., 2016; Delgado-Guay et al., 2011; Mako, Galek & Poppito, 2006; Miranda et al., 2020; Neimeyer & Burke, 2017; Velosa, Caldeira & Capelas, 2017).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성경적 상담의 주된 목표인 관점에서 영적 고통은 성경적 상담에서 주의 깊게 고려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다. 영적 고통을 겪는 내담자는 하나님께서 현재 주시는 자원과 능력, 도우심을 보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여 주 호소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적 상담에서 내담자의 영적 고통을 다루고, 영적 고통에서 회복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주 호소 문제 해결과 연결된 중요한 과제이다.

성경적 상담의 핵심 변화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마음의 변화이며 (Lane & Tripp, 2009; Keller, 2011), 성경적 상담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호소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적 고통의 일회적인 회복 뿐 아니라, 마음의 역량, 즉 영적 역량(Spiritual competency)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영적 역량 중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역량인 영적 탄력성을 증진 시키는 것은 성경적 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통에서의 회복력 뿐 아니라, 재발과 예방에 중요한 마음의 근력을 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적 탄력성은 기독교인의 가장 핵심적인 고통인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력을 다루기에 주의 깊게 다뤄야 한다. 영적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감과 무의미, 영적 자원의 결핍 등을 포함한다. 이런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적, 정서적, 의지적인 마음의 전 영역에서 일어난다 (Shim, 2021).

성경적 상담 과정에서 영적 탄력성을 증진 시키기 위해 영적 탄력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내담자가 지닌 다른 영적 자원과 개인의 심리적 자원과의 연관성 또한 살필 필요가 있다. 한 성도의 영적 탄력성이 어떤 요인으로 하여금 촉진되고 강화되는지를 확인한다면, 성경적 상담 과정에서 보다 초점을 갖고 체계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척도의 적용, 연구표본, 다양한 변수와의 동시적 인과관계 연구의 한계가 있다. 첫째, 기독교인의 독특한 영적 탄력성을 측정하는 척도

가 개발되었으나(심정연, 2024), 그 척도를 적용하여 타 변수와의 연관성을 탐색한 연구는 미흡했다. 기존의 연구들은 기독교인의 영적 탄력성을 이론적 관점으로 개념화하거나(Shim, 2021),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편적 회복력으로서 영적 탄력성을 개념화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Manning, 2019).

둘째, 기독교인의 영적 역량을 의미하는 영적 탄력성의 독특성으로 인해 영적 탄력성의 경험적 연구표본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포함된 연구대상의 보편적인 영성을 다루는데 영적 탄력성이 탐색되었다. Manning (2019)은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적 탄력성의 개념을 수립하면서 노년층이 역경, 스트레스, 트라우마 등을 직면했을 때 회복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Manning은 영적 탄력성의 개념을 질적 연구를 기반으로 제시하였으나, 일반인 노년층을 대상으로 탐색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정의인 영적 탄력성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적 탄력성과 다양한 변수의 동시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구조방정식을 기반으로 탐색될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방법들은 동시적 관계를 탐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한 개인의 영적 역량의 중심인 영적 탄력성에 미치는 한 개인이 지닌 영적 자원인 영적 안녕감, 하나님 이미지와 한 개인의 본연적인 자원인 자존감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능력으로 정의되는 영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신앙적·심리적 자원을 규명함으로써, 성경적 상담의 장에서 영적 탄력성 증진을 위한 체계적 접근의 이론적 및 실천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 개인의 신앙적 자원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녕감을 포함하는 영적 안녕감, 성경적인 하나님 지식을 담은 하나님 이미지, 한 개인의 가치감을 측정하는 자존감이 어떻게 영적 탄력성을 예측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여러 영적 요인 가운데, 영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과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 영적 안녕감, 관계적 지식인 하나님 이미지, 그리고 자존감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이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고(심정연, 2017), 영적 탄력성의 기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존감은 개인의 주된 심리적 자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만족감과 삶의 의미를 경험할 때 증가하여(유지은, 송윤희, 2019; 신성만, 김주은, 2011; 심정연 2017), 영적 탄력성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적 안녕감이 하나님 이미지를 통해 영적 탄력성을 예측하는 경로와 영적 안녕감이 자존감을 통해 영적 탄력성을 예측하는 경로를 확인

하고, 그 효과의 유의성과 bootstrap 분석을 통한 매개 효과를 검증한다.

II. 펴는 글

1. 영적 탄력성의 정의와 특징

영적 탄력성(spiritual resilience)은 기독교인이 경험하는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 탄력성으로, 개인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인 내적 능력 뿐 아니라, 영적 고통에서 도움을 주는 공동체의 역량을 포함한다(Shim, 2021). 영적 고통(spiritual suffering)은 성도에게 가장 큰 위기이자 고통이다(시 22; Lloyd-Jones, 1998).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감과 소외감, 영적 자원의 결핍 등을 특징으로 하는 영적 고통은 (Brown et al., 2006; Duff, 1994; Durà-Vilà & Dein, 2009; Lloyd-Jones, 1998; NANDA, 2007; Shim, 2021)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를 일으키는 역동의 가장 핵심에 존재한다(Shim, 2021). 성경적 상담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단절감이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된다면, 내담자는 다른 회복력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적 탄력성은 마음 중심의 도미노처럼, 마음의 가장 중심에서 내담자가 회복되도록 돕는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단절감의 회복과 그 마음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은 주 호소 문제의 회복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회복 탄력성(resilience)은 개인이 삶의 고통에서 자신의 기능을 회복하는 역량으로 정의된다(Kaplan et al., 1996). 심리적 회복 탄력성은 일반적인 고통에서의 회복역량이며, 한 개인이 지닌 높은 자존감, 내적 귀인, 책임감, 유머, 문제해결 능력, 특별한 특질과 기능을 포함한다(Coutu, 2002; Caverly, 2005; Garmezy, 1991). 회복 탄력성은 한 개인의 특정 역량에 주목했지만, 본 연구가 정의하는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능력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 왜냐하면 영적 고통은 일반적 고통과 구별되는 하나님과의 단절감이 핵심 경험이고, 이 단절감은 자존감,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역량으로는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회복이 핵심 역동이기 때문이다(Shim, 2021).

영적 탄력성은 영적 역량 중 하나로, 안정적이고 통합된 능력(Coutu, 2002)으로서 개인의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능력이다. 동시에 영적 역량은 성령님의 특별 계시적인 도우심으로 가능케 되는 능력으로 타 역량과 구별된다(Hoekema, 1986; 심정

연, 2024). 본 연구가 정의하는 영적 역량(spiritual competence)은 기독교인이 갖게 되는 역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구축되는 한 개인의 역량이다. 그러므로 영적 역량은 비기독교인의 역량과 구별된다. 왜냐하면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역량이기 때문이다 (Shim, 2021; 심정연, 2024).

성경적 관점에서 영적 탄력성은 지적, 정서적, 의지적 역량과 신앙공동체의 역량으로 구성된다. 영적 탄력성의 내적 요인 중 첫 번째 요인인 지적 역량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며 성경적으로 고통을 해석하는 역량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고통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 성도의 세계관, 가치관, 신념 체계, 사고가 구축되는 역량을 포함한다(Keller, 2013; Kuyper, 2008).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성경적 마음의 변화는 시작되며, 지, 정, 의의 전인적 변화가 시작된다(Lloyd-Jones, 1998; 시 13, 22, 25, 74, 83).

두 번째 정서적 역량은 영적 고통 안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단절감, 공허감을 알아차리고 수용하며(Durà-Vilà & Dein, 2009; 시 10, 11),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기쁨, 위로를 경험하는 능력이다(시 27:5, 13-14, 28:7-9, 30:5, 32:11; 갈 5:22-23).

마지막 역량은 하나님과의 단절감을 느끼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의지적 역량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역량이다(Durà-Vilà & Dein, 2009; Keller, 2013; Worthington et al., 2016).

영적 탄력성의 외적 요인은 한 개인이 경험하는 신앙공동체 능력이다(Shim, 2021). 외적 요인은 개인이 경험하고 자각하는 외적 자원인 신앙공동체의 자원을 의미한다. 신앙공동체는 서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며, 권면하고 기도한다(McGrath, 2013; Shim, 2021; Welch, 2013). 신앙공동체는 성도가 서로 세워주고, 약함을 책임지며(안경승, 2010; Stott, 2010) 그리스도 안의 한 몸이 된다(고전 12:25-26; 엡 4:15-16).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력이 성도 개인의 내적인 역량 뿐 아니라, 성도가 한 몸으로 연결된 신앙공동체의 역량과도 연결됨을 보여준다.

2. 영적 안녕감과 하나님 이미지, 자존감의 정의 및 특징

영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성도의 핵심 영적 요인 중 영적 안녕감과 하나님 이미지, 자존감을 살펴본다.

1) 영적 안녕감

먼저, 영적 요인으로 다양한 연구에서 확인되어온 영적 안녕감은 한 개인이 경험하는 영적인 만족감을 의미한다. 영적 안녕감은 만족하는 경험 자체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의미하는 영적 탄력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영적 안녕감은 수직적 차원, 수평적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수직적 차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을 측정하는 종교적 안녕감을 의미하고, 수평적 차원은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 실존적 안녕감으로 구성된다(Paloutzian & Ellison, 1982). 종교적 안녕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의 행복감,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에 대한 믿음을 포함한다. 실존적 안녕감은 삶의 목적의식과 의미를 포함한다(박지아, 2003).

2) 하나님 이미지

하나님 이미지는 성도가 지닌 영적 지식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 이미지를 의미한다(Edwards, 2005; 심정연, 2020). 성경적 관점의 하나님 이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 하나님과의 일화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지식이다(심정연, 2016). 본 연구가 정의하는 하나님 이미지는 기존의 애착 대상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대상 표상으로서의 하나님 이미지와 여러 인지적 작용을 통해 인지적으로 형성되는 이미지(이정모, 2009; Rizzuto, 2000)를 넘어, 영적 지식으로서 형성되는 하나님 이미지를 의미한다(심정연, 2016). 하나님 이미지는 영적 지식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형성되는 독특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얻어지는 지식이기 때문이다(Calvin, 2008).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는 성경을 기반으로 형성된다(Calvin, 2008; Packer, 2011).

3) 자존감

마지막으로 자존감은 자기 평가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감정으로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자신을 좋아하는 감정(Brown, 1998)을 포함한다. 개인은 실제 현실보다 주관적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자존감을 경험한다(Zeiger-Hill, 2013). 개인의 자존감은 자기의 장점, 단점 등의 총체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형성된다(Rosenberg, 1965). 기독교인의 자존감은 궁극적으로 자존감의 근거가 자신의 성취나 능력에 있지 않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자녀로서의 부르심에 근거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확인되는 자기 가치에 기인하기 때문이다(McGrath & McGrath, 2001).

3. 영적 안녕감, 하나님 이미지, 영적 탄력성과의 관계

선행연구들을 통해 영적 안녕감과 하나님 이미지와의 긴밀한 연관성이 확인되어왔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은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고(심정연, 2017), 이 이미지는 영적 고통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 영적 고통으로부터 회복하도록 돕는 지적, 정서적, 의지적인 내적 능력과 공동체의 역량인 영적 탄력성은 성경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 더욱 강력하게 구축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적 지식이 관계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황혜리, 김지윤, 2012)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는 단순한 개념적 지식을 넘어, 경험적으로 형성되는 관계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관계적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은 관계적 지식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하나님 이미지를 촉진하고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력, 즉 영적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과의 단절감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영적 고통에서 회복되었다(시 13, 22, 25, 74, 83).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영적 역량인 영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기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1. 영적 안녕감은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영적 탄력성을 예측할 것이다.

4. 영적 안녕감, 자존감, 영적 탄력성과의 관계

선행연구들에서는 영적 안녕감이 자존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며, 자존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지은, 송윤희, 2019; 신성만, 김주은, 2011; 심정연, 2017; Kang et al., 2009). 한 개인의 영적 안녕감은 자존감을 촉진할 뿐 아니라, 하위요소인 실존적 안녕감 역시 자존감을 긍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유지은, 송윤희의 연구(2019)에서 영적 안녕감이 자존감을 촉진하고, 자존감을 매개로 대학 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다른 선행연구들은 영적 안녕감의 하위 요소인 실존적 안녕감이 자존감을 예측하였다(신성만, 김주은, 2011; 심정연, 2017).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만족감과 삶의 의미 경험이 자기 가치의 평가에 핵심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기독교인의 자존감은 기독교인이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 안에서 자기 가치를 알게 될 때 형성될 수 있기에(McGrath & McGrath,

2001), 한 개인의 영적 안녕감은 자존감을 예측할 수 있다.

영적 안녕감이 촉진하는 자존감은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력인 영적 탄력성을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어 어떤 분이심과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고 깨달을 때,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시 13, 22).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2. 영적 안녕감은 자존감을 매개로 영적 탄력성을 예측할 것이다.

5.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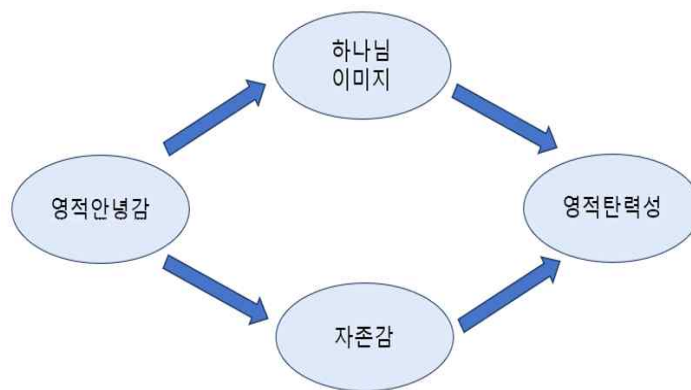
1) 연구가설 및 모델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영적 안녕감이 하나님 이미지, 자존감을 매개로 영적 탄력성을 촉진하는 영적 요인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예측하였다.

H1. 영적 안녕감은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영적 탄력성을 예측할 것이다.

H2. 영적 안녕감은 자존감을 매개로 영적 탄력성을 예측할 것이다.

위의 가설을 기반으로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교회에 출석하는 서울 및 경기도의 기독교인 256명 (남성 103명, 40.2%; 여성 153명, 59.8%; 연령 평균 39.92세, 표준편차 12.78)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자료는 구글 링크와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3) 측정도구

(1) 영적 탄력성 척도 (Spiritual resilience scale)

영적 탄력성 척도는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력을 탐색하는 척도로, 3가지 하위요인으로 확인되었다(심정연, 2024). 영적 탄력성은 지적, 정서적, 의지적 요인과 공동체의 외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개념화되고 개발되었는데, 본 척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하위요소로 나타났다. 1요인은 지적, 정서적, 의지적 역량이다. 지적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심을 생각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기억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심을 기억했다.’ 등의 고통 안에서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생각과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정서적 역량은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거나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이 느껴질 때 느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길 기대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다는 느낌이 실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등으로 구성된다. 내재적 역량의 마지막인 의지적 영적 탄력성은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성경 말씀을 읽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다.’ 등으로 구성된다. 2요인은 신앙공동체의 역량으로는 ‘나는 나를 지지해주는 신앙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했다.’, ‘교회 그룹 모임 소그룹 모임 지지 그룹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등에 참석했다.’ ‘신앙공동체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신앙공동체는 나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도왔다’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3요인은 성경적 관점의 고통의 해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겪으셨음을 기억했다.’ ‘하나님은 태초에 고통이 없게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것을 기억했다.’, ‘세상은 타락 이후 고통을 겪고 있음을 기억했다.’로 구성되었다. 영적 탄력성 척도는 49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5점(항상 그렇다), 4점(대체로 그렇다), 3점(보통이다), 2점(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었다. 전체 49개 문항에서, 최소 49점, 최대 245점이 측정될 수 있다. 하위 척도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 역량이 포함되는 요인 1은 40점에서 200점, 공동체의 역량인 요인 2는 5점에서 25점, 고통에 대한 성경적 이해인 요인 3은 4점에서 20점

사이로 범위가 설정되었다. 심정연의 연구에서 요인1의 Cronbach's α 는 .979, 요인2의 Cronbach's α 는 .903,였고, 요인3의 Cronbach's α 는 .781, 본 연구의 영적 탄력성 전체 Cronbach's α 는 .976였다.

(2) 한국판 단축형 하나님 이미지 척도(Korean Brief version of God's Image scale; KBGIS)

한국판 단축형 하나님 이미지 척도는 5요인 척도로, 기존 Lawrence의 6요인(임재, 도전, 수용, 자비, 영향, 섭리) 72문항 척도를 5요인(응답, 수용, 자비, 임재, 양육) 17문항으로 단축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한 척도이다(심정연, 김준, 2024).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며 자라게 하신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인생의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용기를 주시고 응원하신다.', '나는 기도하고 응답받는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4점 척도로 17점에서 68점까지 분포한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그렇다), 4(매우 그렇다) 점으로 구성되었다. 심정연, 김준(20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이고, 본 연구의 하나님 이미지의 Cronbach's α 는 .89이다.

(3) 영적 안녕감 척도 (Spiritual Wellbeing Scale)

영적 안녕감 척도는 종교적 안녕감과 실존적 안녕감의 두 하위요소로 구성된 척도로 총 20문항을 포함한다(Paloutzian & Ellison, 1982). 종교적 안녕감은 한 개인이 겪는 하나님과의 관계 만족감을 측정하고, 실존적 안녕감은 개인의 삶의 만족, 의미를 탐색한다. 종교적 안녕감은 '나는 신과 가깝게 지낼 때 가장 만족스럽게 느낀다.', '나는 신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신다고 믿는다.' 와 같은 문항들을 통해 종교적 안녕감을 측정하고, '산다는 것은 내게 많은 의미를 준다.', '나는 살아가는 것에 어떤 참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등의 문항들을 통해 실존적 안녕감을 측정한다. Likert식 6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거의 그렇지 않다), 3점(그러지 않다), 4점(그렇다), 5점(거의 그렇다), 6점(매우 그렇다)으로 나타난다(박지아, 2003). 본 연구는 박지아(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박지아의 연구의 Cronbach's α 는 영적 안녕감은 .91이고, 본 연구의 영적 안녕감의 Cronbach's α 는 .95이다.

(4) 자존감 척도 (Rosenberg Self-esteem scale)

자존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척도를 변안한 이훈진과 원호택(1995)의 연구를 차재선(2013)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좋은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1-5 점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로 구성된다. 차재선의 연구의 Cronbach's α 는 .85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7이다.

4) 분석방법

영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요소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분석은 SPSS (버전 31.0)과 SPSS AMOS 31.0을 기반으로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및 Bootstrapping 분석으로 매개분석이 실시되었다. 모델은 CFI의 값이 0.90이상, TLI가 0.90 이상, RMSEA가 .08 이하일 때 적합하다(Hair et al., 2010). 본 연구는 문항묶음을 통해 측정오류를 줄였다. 먼저 문항을 1개 요인으로 고정한 뒤, 요인분석(주성분 분석)을 통해 문항을 나열하고, 균형적으로 부하량으로 고려하여 문항 묶음을 실시하였다(Little et al., 2013; Lee & Kim, 2016).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AMOS 3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00회 표본을 무작위 재추출하여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신뢰구간은 Bias-Corrected 95% 신뢰구간(BC CI)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Preacher & Hayes, 2008).

6. 연구결과

1) 상관분석

본 연구의 변수인 영적 탄력성, 영적 안녕감, 하나님 이미지, 자존감은 모두 정적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적 안녕감은 하나님 이미지($r = .0.83, p < 0.001$), 자존감($r = 0.67, p < 0.001$), 영적 탄력성($r = 0.62, p < 0.001$)과 모두 높은 상관을 유의미하게 보였다. 이는 긍정적인 영적 안녕감을 경험할수록,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와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이미지($r = 0.54, p < 0.001$)와 자존감($r = 0.39, p < 0.001$)은 영적 탄력성과 모두와 중간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가질수록 영적 탄력성이 높아지며, 자존감이 높을수록 높은 영적 탄력성, 즉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력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변수별 상관관계

경로	영적 탄력성	자존감	영적 안녕감	하나님 이미지
영적 탄력성				
자존감	0.39***			
영적 안녕감	0.62***	0.67***		
하나님 이미지	0.54***	0.49***	0.83***	*

$p < 0.05$, ** $p < 0.01$, *** $p < 0.001$

2)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및 매개 효과 분석

(1) 모형의 평가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사용하여 측정변수를 그룹화하여 측정하였다. 영적 탄력성, 하나님 이미지, 영적 안녕감, 자존감 문항들은 평행분석 결과 각각 1요인 구조로 나와 단일지표로 정의하고 요인적재량, 오차분석을 계산 후 고정하였다(배병렬, 2009).

모형은 CFI, TLI가 .90이상, RMSEA가 .08미만일 때 적합하다 (Hair et al., 2010). 본 연구 모형은 CFI가 .986, TLI가 0.982, RMSEA가 0.063이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연구모형의 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CFI	TLI	RMSEA
모형	100.197	50	0.986	0.982	0.063

(2) 모형의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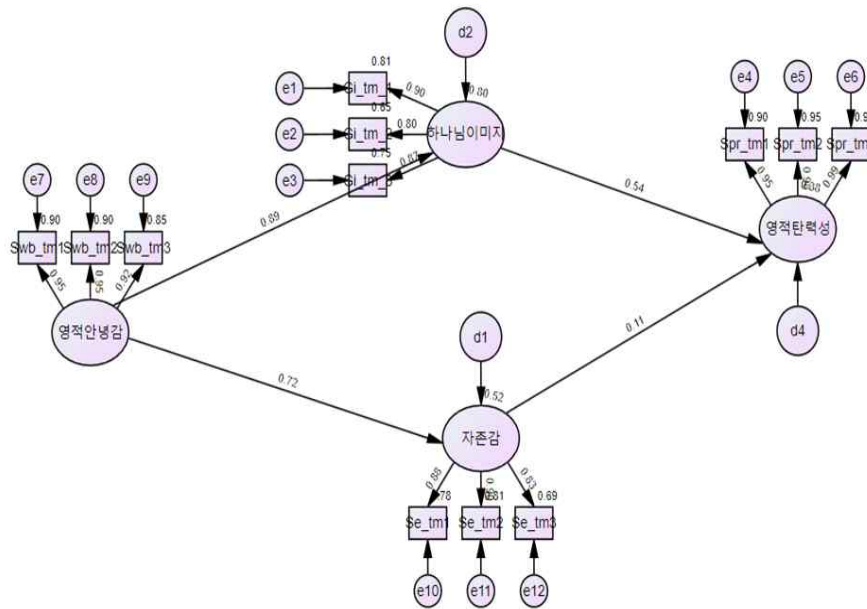
모형의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 영적 안녕감은 하나님 이미지($\beta = .89$, $r < 0.001$)와 자존감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beta = .72$, $r < 0.001$). 영적 탄력성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요인으로 하나님 이미지가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beta = .54$, $r < 0.001$). 반면, 자존감이 영적 탄력성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모형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기

에($\beta = .08, r > 0.05$), 자존감을 매개로 영적 안녕감이 영적 탄력성을 매개한다는 가설 2가 기각되었다.

〈표 3〉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
영적 안녕감 -> 하나님 이미지	0.43	0.89	0.02	18.02***
영적 안녕감 -> 자존감	0.53	0.72	0.04	12.23***
하나님 이미지 -> 영적 탄력성	0.83	0.54	0.12	7.01***
자존감 -> 영적 탄력성	0.11	0.11	0.08	1.49

* $p < 0.05$, ** $p < 0.01$, *** $p < 0.001$



(그림 2) 구조방정식 연구 모형의 분석결과

Note: SWB = Spiritual Well-being (영적 안녕감); GI = God Image (하나님 이미지); SE = Self-esteem (자존감); SPR = Spiritual Resilience (영적 탄력성). Swb_tm1~3, Gi_tm1~3, Se_tm1~3, Spr_tm1~3: 각 잠재 변수를 측정하는 관측 변수; d1, d2, d4: 잔차항; e1~e12: 측정 오차.

(3) 매개 효과 분석

최종모형에서 영적 안녕감이 하나님 이미지를 통해 영적 탄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Bootstrap 분석 결과, 영적 안녕감이 하나님 이미지를 거쳐 영적 탄력성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B = 0.42$, 95% BC CI [0.34, 0.50], $p = .001$). 이는 영적 안녕감이 영적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영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영적 안녕감에서 영적 탄력성으로의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beta = .00$), 완전 매개(full mediation) 모형이 지지되었다.

〈표 4〉 간접효과에 대한 bootstrap 검증결과

경로	추정계수	95% BC 신뢰구간	
영적 안녕감 → 하나님 이미지 → 영적 탄력성	0.42	0.34	.0.50***

* $p < 0.05$, ** $p < 0.01$, *** $p < 0.001$

III. 닫는 글

영적 탄력성은 영적 안녕감, 하나님 이미지, 자존감과 모두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영적 탄력성에 미치는 영적 안녕감, 하나님 이미지, 자존감과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인의 영적 안녕감은 하나님 이미지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기존의 선행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심정연, 2017). 특히 본 연구는 하나님 이미지 중 응답, 수용, 자비, 임재, 양육하는 하나님 이미지를 측정했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만족감을 설명하는 종교적 안녕감과 삶의 의미를 자각하고 만족하는 실존적 안녕감이 모두가 포

함되는 영적 안녕감이 응답하시고, 수용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임재하시며 양육하시는 다섯 모습의 하나님 이미지 형성을 촉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이미지는 또한 영적 탄력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하나님 이미지는 β 값이 .54로 영적 탄력성을 정적으로 촉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성도가 가진 응답, 수용, 자비, 임재, 양육하는 하나님 이미지가 영적 탄력성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다섯 모습의 하나님 이미지가 영적 고통에서의 회복 역량으로서 지, 정, 의의 내적 역량과 외적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위의 결과와 함께, 영적 안녕감은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영적 탄력성을 예측할 것이라는 가설 1이 검증되었다. Bootstrap 분석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녕감과 삶의 의미에 대한 만족감이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고, 하나님 이미지를 통해 영적 탄력성이 예측된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완전 매개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는 영적 안녕감이 영적 탄력성을 촉진하는데 하나님 이미지가 완전한 매개요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영적 안녕감은 자존감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유지은, 송윤희(2019) 연구와 같은 맥락이며, 실존적 영적 안녕감이 자존감을 예측하는 기존의 선행연구(신성만, 김주은, 2011; 심정연, 2017)들과도 연결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만족감과 삶의 의미를 경험할수록 긍정적이고 통합적인 자기평가를 기반으로 자기 가치감과 존중감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자존감이 영적 탄력성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매개변수 모델이 성립하지 않아 가설 2는 기각되었다. 기독교인의 영적 안녕감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지만, 자존감이 영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자기 평가에 기인한 자기 가치감이 영적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영적 안녕감이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영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였다. 이는 영적 안녕감이 하나님 이미지를 매개로 영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역동(spiritual dynamics)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확인하는데 있다. 특히 한 개인의 영적 요소들이 서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구조를 탐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영적 안녕감, 하나님 이미지, 영적 탄력성의 단일한 요소가 각각 특정 정신병리나 상담의 이슈에 영향을 주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보다, 세 가지 영적 요인들의 영적 역동(spiritual dynamics)이 정신병리와 심리 영적 자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하게 살피는데 임상과 연구에 중요한 기반자료가 될 것이다. 영적 탄력성이 성경적 하나님 이미지를 기반으로 문항들이 도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응답, 수용, 자비, 임재, 양육하는 다섯 모습의 하나님 이미지가 영적 탄력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하나님 이미지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상담 과정에서 영적 탄력성 증진을 개입할 때, 다섯 모습의 하나님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입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의 성경적 상담에서의 적용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적 상담에서 영적 탄력성을 증진 시키는 개입을 할 때, 영적 탄력성 개입 이전에 순차적으로 영적 안녕감과 하나님 이미지를 측정하고 개입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보여준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녕감, 삶의 의미 경험 등을 탐색하고, 개입한 후, 다섯 모습의 하나님 이미지를 탐색하고 개입하는 선행적인 개입이 영적 탄력성 개입의 촉진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성경적 상담의 사례 개념화에서 영적 탄력성과 함께 영적 안녕감과 하나님 이미지를 측정할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지지해준다. 개별적으로 영적 탄력성이라는 단일한 영적 요소만 개인이 지닌 영적 자원으로 보는 것을 넘어, 영적 안녕감, 하나님 이미지, 영적 탄력성을 하나의 영적 역동의 묶음으로 보고 영적 검사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성경적 상담의 사례 개념화와 상담 과정에서의 영적 변화를 탐색하고 측정하기 위해, 이 세 가지 요인을 함께 본다면, 보다 면밀한 사례 개념화와 상담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추후 연구들이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영적 역동이 기독교인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보호 요인과 다른 심리 영적 자원과 역량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세 가지 주요 영적 요소의 인과관계가 경험적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조절, 매개 효과와 한 시간대 뿐 아니라 여러 시간대의 연구인 종단 연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적 상담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세 가지 영적 요인들 진단하고 상담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영적 요인 간의 역동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추정함으로써, 성경적 상담의 독특한 개입과 효과성의 양상들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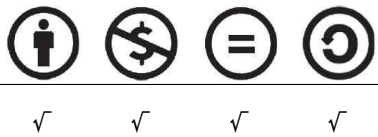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서 하나의 시간대에 영적 요인들의 관계를 측정한 한계를 지닌다. 추후에는 다양한 시간대의 영적 요인들의 역동을 탐색하면서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영적 요인들의 일관된 관계를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기독교인에 한정되어 있고 동양 문화의 영향을 받기에, 다양한 인구의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 투고일: 2025년 09월 30일

•논문 수정일: 2025년 11월 05일

•게재 확정일: 2025년 11월 11일



【참고 문헌】

- 박지아 (2003). 적응 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 애착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병렬 (2009).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신성만, 김주은, 오종현, 구충성 (2011). 청소년의 실존적 영적 안녕감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2(5), 1613-1628. <http://dx.doi.org/10.15703/kjc.12.5.201110.1613>
- 심정연 (2016). Rizzuto 의 하나님 이미지 이론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고찰과 적용 방안 연구-하나님 이미지 변화 상담 모델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 **복음과 상담**, 24(2), 183-219. <http://dx.doi.org/10.17841/jocag.2016.24.2.183>
- 심정연 (2017). 기독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 영성의 역동성: 한국판 단축형 하나님 이미지 척도를 기반으로. 총신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심정연 (2020).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대한 기독교교육과 상담에의 고찰: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적 감각을 기반으로. **기독교교육정보**, 65, 121-144.
- 심정연 (2024). 영적 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기독교 영성을 기반으로. **복음과 상담**, 32(3), 115-137. <http://dx.doi.org/10.17841/jocag.2024.32.3.115>
- 심정연, 김준 (2024). 한국판 단축형 하나님 이미지 척도 개발 연구. **신앙과 학문**, 29(4), 253-272. <http://dx.doi.org/10.30806/fs.29.4.202412.253>
- 안경승 (2010). 중독과 신앙공동체. **복음과 상담**, 15, 105-133. <http://dx.doi.org/10.17841/jocag.2010.15..105>
- 유지은, 송윤희 (2019). 기독교교육전공 대학생의 영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대학생활 적응의 구조적 관계. **기독교교육정보**, 62, 1-27.
- 이정모, 강은주, 김민식, 김기택, 김정오 (2009). **인지심리학**. 서울: 학지사.
- 차재선 (2013). 청소년의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자기애, 자기개념 명확성, 긍정적 착각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혜리, 김지윤 (2012). 기독교 상담에서 하나님 이미지의 중요성 연구: 기독교 대학생의 하나님 이미지와 영적 안녕,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1), 263-286.
- Berg, G.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distress, PTSD and

- depression in Vietnam combat veterans. *Journal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65(1), 1-11. <https://doi.org/10.1177/154230501106500106>
- Brown, J. D. (1998). *The Self*. New York: McGraw-Hill.
- Brown, A., Whitney, S., & Duffy, J. (2006). The physician's role in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spiritual distress at the end of life. *Palliative and Supportive Care*, 4, 81-86. <https://doi.org/10.1017/S1478951506060093>
- Caldeira, S., Timmins, F., de Carvalho, E. C., & Vieira, M. (2017). Spiritual well-being and spiritual distress in cancer patients undergoing chemotherapy: utilizing the SWBQ as component of holistic nursing diagnosi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6(4), 1489-1502. <https://doi.org/10.1007/s10943-017-0390-4>
- Calvin, J. (2008).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Kissimmee, FL: Signalman Publishing.
- Coutu, D. (2002). How resilience works. *Harvard Business Review*, 80(5), 46-55.
- Delgado-Guay, M. O., Chisholm, G., Williams, J., Frisbee-Hume, S., Ferguson, A. O., & Bruera, E. (2016). Frequency, intensity, and correlates of spiritual pain in advanced cancer patients assessed in a supportive/palliative care clinic. *Palliative & Supportive Care*, 14(4), 341. <https://doi.org/10.1017/s147895151500108x>
- Delgado-Guay, M. O., Hui, D., Parsons, H. A., Govan, K., De la Cruz, M., Thorney, S., & Bruera, E. (2011). Spirituality, religiosity, and spiritual pain in advanced cancer patients. *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41(6), 986-994. <https://doi.org/10.1016/j.jpainsymman.2010.09.017>
- Duff, V. (1994). Spiritual distress: Deciding to care. *Journal of Christian Nursing*, 11(1), 29- 31. <https://doi.org/10.1097/00005217-199411010-00014>
- Durà-Vilà, G., & Dein, S. (2009). The dark night of the soul: Spiritual distress and its psychiatric implications. *Mental Health, Religion and*

- Culture*, 12(6), 543-559. <https://doi.org/10.1080/13674670902858800>
- Edwards, J. (2005). **신앙감정론** (정성욱 역, *Religious affections*).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전 1746 출판).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NY: Pearson, 2010.
- Hoekema, A. A. (1986).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MI: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Kang, K. A., Kim, S. J., & Song, M. K. (2009). Relationship of self-esteem, meaning in life, and spiritual well-be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5(4), 343-349.
- Keller, T. (2011). **왕의 십자가** (정성목 역, *King's Cross*), 서울: 두란노. (원전 2011 출판).
- Kuyper, A. (2008). *Lectures on Calvinism*. MA: Hendrickson Publishers.
- Lane, T. S. & Tripp, P. D. (2009)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김준수 외 역, *How people change*).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전 2006 출판).
- Lee, J., & Kim, S. (2016). Item parceling: Understanding and applying the principles.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5(2), 327-353.
-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 <https://doi.org/10.1037/a0033266>
- Lloyd-Jones. D. M. (1998). *Spiritual depression: Its causes and cures*. Grand Rapids, MI: Zondervan.
- Mako, C., Galek, K., & Poppito, S. R. (2006). Spiritual pain among patients with advanced cancer in palliative care.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 9(5), 1106-1113. <https://doi.org/10.1089/jpm.2006.9.1106>
- Manning, L. K. (2014). Enduring as lived experience: Exploring the essence of spiritual resilience for women in late life.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3(2), 352-362. <https://doi.org/10.1007/s10943-012-9633-6>
- Manning, L., Ferris, M., Narvaez Rosario, C., Prues, M., & Bouchard, L. (2019). Spiritual resilience: Understanding the protection and

- promotion of well-being in the later life. *Journal of Religion, Spirituality & Aging*, 31(2), 168-186. <https://doi.org/10.1080/15528030.2018.1532859>
- McGrath, A. & McGrath, J (2001). *Self-esteem: The Cross and Christian confidenc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Miranda, T. P. S., Caldeira, S., de Oliveira, H. F., Iunes, D. H., Nogueira, D. A., Chaves, E. D. C. L., & de Carvalho, E. C. (2020). Intercessory prayer on spiritual distress, spiritual coping, anxiety, depression and salivary amylase in breast cancer patients during radiotherapy: Randomized clinical trial.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9(1), 365-380. <https://doi.org/10.1007/s10943-019-00827-5>
- Neimeyer, R. A., & Burke, L. A. (2017). Spiritual distress and depression in bereavement: A meaning-oriented contribution.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35(1), 38-59. <https://doi.org/10.1007/s10942-017-0262-6>
- North American Nursing Diagnosis Association. (2007). NANDA Nursing Diagnoses. North American Nursing Diagnosis Association.
- Packer, J. I. (2011). *Knowing God* [Kindle Edition]. London: Hodder & Stoughton.
- Paloutzian, R. F., & Ellison, C. W. (1982).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L. A.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 224-236). New York: John Wiley & Sons.
- Pargament, K. I., Koenig, H. G., & Perez, L. M. (2000). The many methods of religious coping: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RCOP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4), 519-543. [https://doi.org/10.1002/\(sici\)1097-4679\(200004\)56:4<519::aid-jclp6>3.3.co;2-t](https://doi.org/10.1002/(sici)1097-4679(200004)56:4<519::aid-jclp6>3.3.co;2-t)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Contemporary approaches to assessing mediation in communication research. In A. F. Hayes, M. D. Slater, & L. B. Snyder (Eds.), *The Sage sourcebook of advanced data analysis methods for communication research* (pp. 13-54). Sage

- Publications, Inc. <https://doi.org/10.4135/9781452272054.n2>
- Piper, J. (2011). *Don't waste your cancer*. Wheaton, IL: Crossway.
- Rizzuto, A. M. **살이 있는 신의 탄생-정신분석학 연구** (이재훈, 유영권, 안석모, 황영훈, 반신화, 정희성 역, *The birth of the living God: A psychoanalytic study*).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원전 1979 출판).
-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Shim, J. Y. (2021). A study on spiritual resilience from the Bible perspective: Focusing on recovery from spiritual suffering. **신학과 실천**, 75, 297-321. <http://dx.doi.org/10.14387/jkspth.2021.75.297>.
- Stott, J. (2010). *The radical disciple: Some neglected aspects of our calling*. Downers Grove, IL: IVP.
- Velosa, T., Caldeira, S., & Capelas, M. L. (2017). Depression and spiritual distress in adult palliative patients: a cross-sectional study. *Religions*, 8(8), 156: 1-18. <https://doi.org/10.3390/rel8080156>
- Welch, E. T. (1994a). Exalting pain? Ignoring pain? What do we do with suffering?.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2(3), 4-19.
- Welch, E. T. (2013). **중독의 성경적 이해** (김준 역, *Addictions, a banquet in the grave*).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원전 2001 출판).
- Worthington Jr, E. L., Griffin, B. J., Toussaint, L. L., Nonterah, C. W., Utsey, S. O., & Garthe, R. C. (2016). Forgiveness as a catalyst for psychological, physical, and spiritual resilience in disasters and crise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44(2), 152-165. <https://doi.org/10.1177/009164711604400206>.
- Zeigler-Hill, V. (2013). The importance of self-esteem. In V. Zeigler-Hill (Ed.), *Current issues in social psychology: Self-esteem* (pp.1-20). London: Psychology Press.

[Abstract]

**Predictive Factors of Spiritual Resilience in Christians:
Spiritual Well-Being, God Image, and Self-Esteem**

Shim, Jung 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edictive factors influencing spiritual resilience among Christians.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this study carefully examined (1) the relationships among spiritual resilience, spiritual well-being, God image, and self-esteem; (2) the overall model fit and explanatory power of factors affecting spiritual resilience; and (3) whether God image and self-esteem meaningfu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spiritual resilienc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clearly confirmed among spiritual resilience, spiritual well-being, God image, and self-esteem. Seco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that spiritual well-being strongly predicted both God image and self-esteem, and that God image subsequently predicted spiritual resilience. Third, spiritual well-being predicted spiritual resilience indirectly through biblical God image, wherea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spiritual resili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Christians' relational sense of well-being with God and their experience of personal life meaning positively influence the eventual formation of a biblical God image, which ultimately contributes to one of their essential key spiritual capacities, namely spiritual resilience. Based on these important findings, this study discusses the clinical and research implications for biblical counseling, carefully addresses its limitations, and proposes directions for significant future research.

Key words: spiritual resilience, spiritual competence, God image, spiritual well-being, Biblical counseling

* Soongsil Cyber University, Department of Christian Leadership / Lecturer